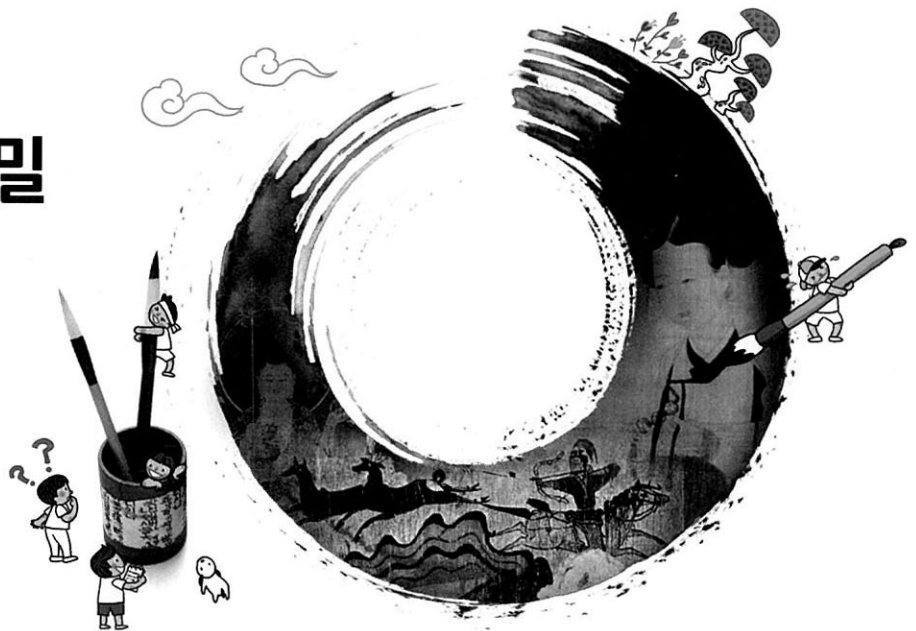


서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다. <모나리자>가 아련한 미소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면, <미인도>는 단아하고 청순하지만 한편으론 에로틱한 모습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또 네덜란드에 브뤼헬의 풍속화가 있다면 조선에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가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서양 미술작품과 견줘도 결코 뒤지지 않을 우리만의 소중한 그림이 있지만, 우리에게겐 해원과 단원이 전부다. 많은 서양화가와 그들의 작품, 서양화 기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소중한 우리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와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역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웠을 뿐,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다.

아름다운 한국화의 비밀

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것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다. 이는 우리 전통 그림을 부르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 흔히 동양화나 한국화가 우리 그림을 지칭하는 동일한 명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국악(國樂)을 동양악(東洋樂)이라고 부르지 않듯 우리 그림은 '한국화'로 불러야 옳다. 동양화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붙여 놓은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그림을 국화(國畫), 일본이 일본화(日本畫)라 부르고 있었으니 조선은 당연히 조선화(朝鮮畫)라 불렀어야 했지만, 일제는 동양화라는 정체성도 없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다. 우리 그림은 해방 후에도 동양화로 불리다 198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한국화란 이름이 공

식적으로 사용되면서 명확한 이름을 갖게 된다.

한국화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붓과 먹으로 화선지에 그린 수묵화만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조선 시대 선비들이 심신 수양의 한 방법으로 서화(書畵)를 많이 그렸고, 화법도 많이 발달했으니 당연한 생각일 순 있다. 하지만 서양화가 동굴벽화에서 출발했듯 한국화도 반구대 암각화나 고구려 고분벽화와 같은 벽화의 채색화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종이나 붓을 발명하는 것보다 자연에서 광물성 안료들을 얻는 것이 쉬웠기 때문이다. 광물들은 다양한 원소들의 결합으로 여러 가지 색을 띤다. 가장 흔한 것이 철의 산화물인 산화철의 붉은색이며, 숯의 검은색이나 백악(탄산칼슘)의 흰색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벽화는 고구려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만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는 한국화로, 오늘날에도 고구려인의 기상이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끝으로 더 이상 뛰어난 벽화는 등장하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미술이 화려하게 꽃피우게 된다. 고려의 불화(佛畵)는 중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만큼 뛰어났고, 사찰에 남아 있는 단청을 보면 당시 채색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고려 시대까지의 채색화에서는 주로 광물성 안료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흙에서 구한 광물성 안료들은 철이나 망간,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원소들이 규소와 함께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황토나 고령토, 녹토 등에서 얻을 수 있다. 흙을 곱게 갈아서 밀도 차이를 이용하면(이를 수비라고 부른다.) 필요한 안료를 얻을 수 있었다. 광물성 안료는 식물성 안료에 비해 분자들의 결합에너지가 높아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고분벽화는 빛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안료의 특성에 의해서도 오래도록 그림이 남아 있을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존재하는 고구려 고분들이 중국 당국의 무관심으로 수분과 공기에 의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에 들어서면서 송유역불 정책에 따라 불교미술이 억제되면서 궁중행사나 민화를 제외하면 채색화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한국화가 퇴색한 것은 절대 아니다. 선비들은 수묵화의 소재인 붓, 먹, 화선지, 베틀을 문방사우라 부르며, 이를 가까이 두고 친숙하게 사용해 다양한 화법과 훌륭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분명 조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화풍을 한국 고유의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해냈다. 안견은 북송의 광희 화풍을 받아들였으나,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릉도원을 훌륭히 표현해

냈기에 그의 이 작품을 조선 전기 최고의 명작으로 꼽는 것이다.

아무리 그림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한국화와 서양화가 서로 다른 소재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했을 때 그림이 달라지는 것은 표현 예술인 미술의 속성상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화를 이야기할 때 그림 재료를 빼놓을 수는 없다. 화선지는 중국의 선주 지방에서 유래한 종이지만, 조선의 화선지는 매우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정평 나 있다. 화선지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먹이 부드럽게 번지는 효과를 살려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또한, 화선지에 아교와 호분(조개껍질 분말로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다.)을 이용하면 안료를 잘 부착시킬 수 있어 채색화를 그릴 수도 있었다. 한국화를 그리는 데 사용하는 붓은 서양의 붓과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원뿔형의 탄력성이 있는 붓은 단순히 선을 긋고 색칠하는 도구가 아니라, 화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였다. 화가의 필력에 따라 원뿔형의 붓은 다양한 굵기의 선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먹도 서양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다. 먹은 그늘음에서 얻은 부드럽고 고운 탄소 입자를 아교로 반죽해 굳혀서 만든 거의 순수한 탄소 덩어리에 가깝다. 흔히 먹색이라 하면 짙은 흑색을 생각하지만, 먹색도 원료에 따라 다양한 빛깔을 띤다. 여기에 농담(濃淡)을 이용하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번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먹을 만들 때 사용되는 아교는 한국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로, 채색에 사용되는 염료를 화선지나 벽면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교는 동물의 뼈나 가죽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주성분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콜라겐과 동일한 물질이다. TTA